

역사 공간 속 시간 흔적을 찍다.. 獨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展

November 29, 2011 | 정순민 기자

page 1 of 1

역사 공간 속 시간 흔적을 찍다

獨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展

세계적인 독일 여성 사진작가 칸디다 회퍼(67)의 개인전이 서울 소격동 국제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다. 지난 2005년과 2008년에 이어 세번째로 열리는 이번 전시에는 지난 2009년 독일 베를린 노이에 미술관 내부를 촬영한 작품 12점과 지난해 제작한 수도원 시리즈 중 일부를 선보인다.

노이에 미술관은 1841년부터 1859년까지 총 18년간 프러시안 양식으로 지어진 유서 깊은 건축물로 지난 1999년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록됐다. 노(老)작가가 카메라에 담아낸 이 건축물은 수차례에 걸친 전쟁과 동·서독 체제가 남긴 역사적 상흔을 고스란히 담고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미술관, 도서관, 서점, 카페테리아, 동물원 등 다양한 건축물을 작품의 소재로 선택해온 칸디다 회퍼는 “나는 공간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곳에 놓인 사물들로 인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러한 공간과 사물이 서로 어떻게 연결되었는지 담아내고 싶었다”고 말했다.

이번 전시에 출품된 작품들은 오랜 보수 공사 끝에 지난 2009년 재개관한 노이에 미술관의 내부 8곳을 보여준다. 창을 통해 들어오는 자연광만으로 작업한 작품들은 사람을 철저히 배제한 채 텅 빈 회



노이에 미술관 IX

랑, 복도, 벽면 등 미술관 내부만을 서늘하게 보여줌으로써 역사적 공간에 담긴 시간의 흔적을 절묘하게 포착한다. 특히 미술관 북서쪽에 있는 8각형 돔과 그 아래 자리잡고 있는 고대 이집트 네페르티티 여왕의 두상을 촬영한 ‘노이에 미술관 IX’은 관람객의 눈길을 멈추게 한다. 전시는 오는 12월 25일까지. (02)735-8449

ism64@fnnews.com | 정순민기자